

아동문학 이론의 궁핍과 비평의 부재 메워줄 평론집들

외형적 성장에 비해 이론과 비평은 빈곤해...

어린이의 독자성 인정할 것 요청해

요즘 어린이책 시장이 중흥기를 맞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고 창작물은 넘쳐나고 있지만, 아동문학 이론서나 평론집은 아직도 '아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론서는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고, 전문 비평가 집단은 이제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아동문학의 이론적 공백과 비평의 부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문학 이론서나 평론집은 어른들이 읽는 책이다. 하지만 이런 자명한 사실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동화책을 사서 읽어주면 되지 이론이나 비평이 뭐 그리 필요하냐는 어른들의 무지와 편견의 벽이 의외로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의 아동문학 이론서나 비평서는 아직까지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이론이나 비평이 없는 창작은 물 없는 게임처럼 무질서하고 때론 위험하기조차 하다. 국내 아동문학 시장의 외형은 비대해졌지만, 시간의 시련을 견딜 만한 작품이 생산되지 못한 이유는 이론과 비평의 빈곤이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의 이론서가 번역·소개되고 전문 비평가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데서 그나마 희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어린이관'의 역사적 변천과정 살펴

국내에 나와 있는 아동문학 이론서는 '수입품' 일색이다. 서양의 아동출판 역사가 유구하고 축적된 질적 역량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에서 '무역 역조'는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이다. 시중에 번역된 이론서들은 그 중수가 손에 꼽을 정도지만 대부분 고전의 번역에 올라 있는 책들이다. 또한 명망 있는 출판사들이 주로 간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론서 출판의 특징이다.

시공주니어에서는 지금까지 네권의 아동문학 이론서를 소개해 선발주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영국의 어린이 문학가이자 어린이 문학 평론

가인 존 로 타운젠드가 쓴 《어린이 책의 역사(전 2권)》(강무홍)는 1840년 이전부터 1995년까지 영 어린이 동화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1300여권의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위상을 고찰했다.

이 책의 미덕은 명작동화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어린이 책 속에 담긴 어린이와 어린이관의 변천사까지 조망했다는 점이다. 어린이 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린이에 대한 관점이 점차 진보해온 길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어린이를 교화해 어른의 판박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점차 어린이를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된 과정이 담겨 있다.

페리 노들먼의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전 2권)》(김서정)과 브루노 베텔하임의 《옛 이야기의 매력(전 2권)》(김옥순 외)은 옛 이야기와 그림책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며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탐구한다. 노들먼의 책이 미술이론과 인지이론, 인지발달과 교육이론 등의 이론을 동원한다면, 베텔하임은 심층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베텔하임은 어린이들이 옛 이야기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베텔하임에 따르면, 어린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갈등에 휩싸여 산다. 형제간의 질투심,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에 시달리면서도 어린이들은 옛 이야기를 듣거나 읽다가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문학사가인 폴 아자르의 《책·어린이·어른》(햇살과나무꾼)에서 어린이의 '수호 성인' 역할을 자임한다. 그는 어린이가 자유로운 상상력의 존재이자 독립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어른의 교훈을 무차별 살포할 때 어린 영혼의 싹이 말살될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에 따르면, 좋은 어린이책은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풀어놓는 책이다.

아동문학의 문학적 위상 복원해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낸 마리아 나콜라예바의 《용의 아이들》(김서정)은 아동문학의 제자리 찾기에 주력한다. 지은이는 지금까지 아동문학이 교육과 관련되거나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주목받아온 경향을 비판하고 아동문학의 문학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 책은 기호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아동문학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한다.

지은이는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로빈슨 크루소》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닐스의 이상한 여행》이 왜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는지 묻는다. 이 책들이 뛰어난 문학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답이다. 지은이는 어린이 문학이 문학적으로 진화, 성장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동화읽기에 담긴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책도 나와 있다. 베레나 카스트의 《어른이 되는 이야기》(박미애 외, 철학과현실사)는 〈행복의 꽃〉

〈하얀 고양이〉 〈황금새〉 등의 동화를 빌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도록 이끈다. 지은이는 '다르게 보기' '빚대어 보기' '전체적으로 보기' 등의 과정으로 동화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문학계에서는 아동문학을 성인문학의 하위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인정하는 추세다. 이는 아동문학 시장의 팽창에도 기인하지만, 아동문학 연구자나 비평가들의 선구적 작업에 힘입은 바 크다. 아직은 창작과 비평을 겸업하는 이들이 많지만, 점차 이론으로 단련된 전문 비평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근대 아동문학의 원류와 역사 짚어

최근 《그림책》(비룡소)을 펴낸 아동문학평론가 최윤정은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와 《슬픈 거인》(이상 문학과지성사)을 펴내 글쓰기 교육, 독서지도, 어린이책 출판 등에 대해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은이가 보기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책만을 까다롭게 골라 주는 것이다.

지은이는 독서교육의 발상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아이들에게 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책의 주인이 되게 이끌고, 책에 주눅들지 않고 능동적으로 되는 길을 깨우쳐주라고 주장한다. 책에서 교훈이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책읽기를 방해한다. 오히려 문학적 감동의 본질은 책에서 무언가 배우고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즐거움을 얻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윤정이 서양 문학이론으로 무장한 채 어린이 문학 현장을 섬세하게 읽어낸다면, 원종찬과 이재복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원류와 역사를 훑고 지나온 정통파라는 점에서 이오덕의 뒤를 이을 소장 비평가들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한국 아동문학 비평의 빈곤과 전통의 단절이라는 화두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원종찬의 첫번째 평론집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은 우리 아동문학을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지만 묻혀버린 작가의 작품을 발굴해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아동문학 이론서나 평론집은 그 중수가 빈약한 편이지만, 비평의 부재나 이론의 빈곤이라는 아동문학계의 한계를 극복할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글, 그리고 최근 아동문학계의 동향을 살피고 서평한 글 등을 모았다. 특히 근대 아동문학의 발자취를 살핀 글들은 문학사가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의 앞머리에 실린 〈한국 아동문학의 어제와 오늘〉은 지은이의 비평가적 안목이 잘 드러난 글이다. 지은이는 한국 아동문학의 기본성격을 현실주의로 규정한다. 20세기의 한국 아동문학은 민족현실과 서민아동의 삶에 밀착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아동문학은 아이를 작가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화적 기능이 중시됐다고 정리한다.

이런 현실주의는 국내 아동문학의 발전과정에서 동심주의와 교훈주의, 그리고 속류 사회학주의를 결합했다고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는 어린이를 순진무구한 천사나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도덕적, 교육적 견지에서 이야기를 제공하려 했으며, 분단시대로 넘어와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우선시하는 이념편향의 태도로 이어졌다는 게 지은이의 분석이다.

“잃어버린 거리의 얼을 되찾자”

한국 아동문학사 정리에 몰두해온 이재복은 《우리 동화 바로 읽기》(한길사)에서 근대 아동문학의 초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아동문학계의 주요한 성과로 꼽히는 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을 이야기한다. 이론과 비평적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어린이 문

학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냈다는 게 이 책의 특징이다.

지은이는 어른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에게 주는 사랑의 말이 바로 어린이문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공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거리의 잃어버린 얼과 마음을 되찾게 하는 일이 바로 어린이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충고한다. 식민지와 분단의 비극을 겪으면서 소멸된 ‘듣는 문학’의 길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도 글 속에 스며 있다.

외국의 아동문학 이론가들과 국내 평론가들의 글을 관통하는 입장은 아이들이 어른의 종속물이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세계관과 의식을 지닌 주체라는 점이다. 이런 본질을 외면할 때 아동문학은 하위문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세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박천홍 기자